

지옥은 어떤 곳인가? (2)

신학박사 조 덕운

3. 예수님의 지옥에 관한 말씀

우리는 앞서 구약의 대언자인 이사야와 다니엘이 지옥에 관하여 예언, 서술한 구절들을 통하여 말세 후에 주 예수님의 왕권이 수립될 것이며, 죽어 있던 살아 있던 모든 영혼들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나아와서 재판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자들은 모두 마귀와 그의 무리들과 함께 영원한 불 호수로 묘사되는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을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대하여 최소한 10 여 차례에 걸쳐서 묘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지옥에 관한 말씀들을 다음 네가지로 구분하여 살펴 봄으로써 과연 어떤 사람들이 지옥에 가게 되는가 알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가. 지옥은 위선자들의 행선지 [마태복음 5:21-22, 27-30; 23:15, 33]

나. 지옥의 통치자는 하나님 [마태 10:28; 25:41,46]

다. 지옥은 퇴짜행 [마태 7:23; 8:11-12; 22:13; 25:30]

라. 지옥은 사악한 자들의 행선지 [마태 13:30, 40-43, 49-50; 18:6-9; 24:51]

가. 지옥은 위선자들의 행선지

[마태복음 5:21-22 함정역] *옛 사람들이 말한바, 너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라가, 하고 말하는 자는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되거니와 누구든지, 너 어리석은 자여, 하고 말하는 자는 지옥 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마태복음 5 장은 예수님의 '산상 수훈'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설교에서 여러번 당시에 존경받는 율법 학자들과 스승들이었던 바리세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위선을 비판하고 그들이 지옥불에 들어 가게 될 것이라고 혹평하셨습니다. 이러한 그의 설교는 매우 충격적이고 도발적인 것으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사게된 연유가 된 것이었습니다. 위에서 본 두 구절에서 예수님께서서는 형제에게 근거 없이 화를 내거나 욕을 하는 사람은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고 지옥 불에 들어갈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 중 여섯번째 계명인데, 종교 지도자들은 십계명을 가르치면서, 백성들을 이유 없이 비판하고 욕함으로써 그들이 지도자들을 두려워 하게 되어 물질을 바치게 하도록 하는 관행이 만연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그런 옳지 못한 관행을 신랄하게 비판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만일 어떤 목회자가 설교 단상에서 성도들을 욕박질러 헌금과 십일조를 더 잘 내도록 하는 탐욕의 목회를 한다고 하면, 그도 지옥불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예수님이 2 천년 전에 경고하신 것이니, 그런 목회자가 있다면 회개하고 올바른 목회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27-30 흥정역] 옛 사람들이 말한바, 너는 간음하지 말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네게서 내버리라. 네 지체 중의 하나가 없어지고 네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네게 유익하니라. 만일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네게서 내버리라. 네 지체 중의 하나가 없어지고 네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네게 유익하니라.

“간음하지 말라”는 일곱번째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 뿐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이 계명을 지킬 뿐 아니라 마음 속에 있는 잘못된 정욕을 제어해야 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만일 그러하지 못하면 지옥에 던져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으니, 보이지 않는 우리 속 사람이 새로 태어남으로써 인간성을 신성으로 대체 받아야 할 필요성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한 내적 변환이 없으면 우리의 지체를 절단하더라도 마음의 통제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것입니다. 불행히도 목회하시는 분들 가운데 가끔 여성 성도들과 불미스런 관계를 갖거나 혼외 관계를 가져서 물의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아무리 목회를 오래 했더라도 지옥 불에 던져질 것이 분명합니다.

나. 지옥의 통치자는 하나님

[마태복음 10:28 흥정역]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이 구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서는 지옥에서 어떤 형벌이 있을 것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 즉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간 혼[Soul]과 몸 [Body] 두가지를 다 “멸하신다 [Destroy]” 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옥에 떨어진 인간들은 그들의 몸과 혼 두가지 모두 영원토록 멸망하는 형벌에 처해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되면 시간이 지나서 몸과 혼이 모두 없어지게 되므로 아무 것도 남는 것이 없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옥에 관한 다른 구절에서 그 형벌이 영원토록 [eternally] 지속된다고 하니 이 멸망의 과정을 통하여 몸과 혼이 전혀 사라지지 않으면서 죽는 고통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41, 46 흥정역] 41 그때에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46 그리하여 이들은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가되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들은 예수님께서서 종말의 시기 후에 있을 “양과 염소의 심판” 때에 주님을 거부한 염소 같이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지옥의 “영존하는 불,” 즉 영원토록 존재하는 불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음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영혼들이 이와 같은 처벌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 복음의 소식을 쉽게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책임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탄압하는 중국 공산당 정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형벌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지속되는 큰 홍수로 인한 산사태의 붕괴와 지진, 페스트의 창궐에 이어서 얼마나 더 큰 재앙이 이어질 것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 이 모든 재앙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은 틀림 없습니다. 그러나

현세의 재앙들은 왔다가 지나가지만, 지옥의 형벌은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니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나라들의 축복의 근원임을 그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다. 지옥은 퇴짜행

[마태복음 7:23 흠정역]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예수님께서서는 이 구절에 앞서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하신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고 하실 것이며,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퇴짜당한
영혼들은 지옥으로 갈 것임을 말씀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믿는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교회에 부지런히 출석하고, 목회도 하고, 선교 사업도 열심히 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니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이 외적으로는 충실한 것처럼 보이나 내면에서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면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우리는 하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거부되고,
지옥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수립하셨습니까? 마치 부부 관계나
부모 자식의 관계와 같이, 또는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처럼 매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하면서,
그분에게 배우면서 지도 받고, 안내 받고, 위로 받고, 때로는 핀잔이나 꾸중도 받고, 그러다가 칭찬도 받고 하는
그런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과 예수님 사이에 이러한 개인적인 관계가 없다면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예수님께서서는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하시겠지요. 그렇게 되면 하늘 왕국 안으로
들어오라는 초대를 받지 못하고 퇴짜를 맞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수립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인정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주 예수님의 친구가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마태복음 8:11-12 흠정역]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의 왕국에서 앉으려니와, 왕국의 자손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날 것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깊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늘 날도 그렇지만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하나님께 구원 받아서 하늘 왕국에 가는 것은 따놓은 티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노노, 혈육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으로 여기에 들어 올 수 없어”라고 말하십니다. 이 세상의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늘의 왕국에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게 되려니와,
‘왕국의 자손들’ 즉 유대인들은 하늘 바깥 어둠 속으로 퇴짜 맞아 축출될 것이며, 그 곳은 지옥일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수 많은 유대인들이 아직 까지도 예수님을 자신들의
메시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늘 왕국에 들어 갈 수 없다는 엄중한 원칙은 예수님 때에나
2 천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22:13-14 함정역] *이에 왕이 종들에게 이르되, 그의 손발을 묶고 그를 데려다가 바깥 어둠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갚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름 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종말 때에 하늘에서 있게 될 혼인잔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의 혼인 잔치가 가게 되면 모든 손님은 잔치를 주관하는 주인 집에서 제공하는 동일한 예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어느 누구도 자신의 옷으로 빈부의 차이를 드러낼 수 없도록 한 좋은 풍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잔치에도 그러한 법칙이 적용된 것인데, 어떤 사람이 왕이 제공하는 예복을 거부하고 자신의 옷을 입고 잔치에 딱하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에 왕은 이 사람을 종들을 시켜서 밖으로 축출하도록 합니다. 즉, 퇴짜 맞아서 지옥으로 내어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이 참으로 용이함을 가르쳐 줍니다. 지옥 가는 것이 쉬운 것처럼 하늘의 왕국에 가는 것도 참으로 단순하고 쉬운 것입니다. 혼인 잔치에 초대 받은 것은 구원을 받도록 복음의 초대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 잔치에 초대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서는 자신의 옷, 즉 자신의 의(義)를 입고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제공되는 죄사함의 의를 통해서만 이 구원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의 공로를 믿는 믿음이 절대로 필요하고, 나의 잘나거나 못난 모습, 내가 행한 일들, 나의 철학, 나의 고집, 그리고 내 안에 거하는 온갖 추악한 것들을 온통 내어 버리고, 예수님의 피로 제공되는 구원의 의를 입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어둠에 있는 지옥으로 퇴짜 당해 영원히 후회와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 들이는 것은 마음만 바꾸면 쉬운 일이 아닐까요? 그렇게 하여 지옥을 피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값진 선택입니까?

[마태복음 25:28-30 함정역] *그런즉 그에게서 그 달란트를 빼앗아 십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있는 자마다 받아서 풍성하게 될 터이나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너희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갚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매우 슬픈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자가 오직 한 달란트만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달란트의 비유에 세 사람의 종들이 나오는데, 각각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주인으로부터 받고 주인의 부재 기간 중에 받은 것을 활용하여 불리라는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첫 두 종은 각각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더 벌어서 100%의 수익을 얻었는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받은 것을 땅 속에 묻어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로 주인을 맞게 된 것입니다. 수익을 얻은 두 종들은 더 많은 주인의 자산을 관리할 책임을 부여 받았지만, 인생을 허비한 세번째 종은 '무익한 종'이라는 질책과 더불어 바깥 어둠 속, 즉 지옥으로 퇴짜 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생명을 선물로 위탁 받았습시다. 마치 금 한 달란트가 수십억원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매우 값진 것이며 결코 낭비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받은 생명을 불려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영원한 가치가 되는 자산 증식을 하는 데에 우리 인생을 사용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이 받은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신이 주인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없신여기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퇴짜를 받게 된다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라. 지옥은 사악한 자들의 행선지

[마태복음 13:29-30; 40-43; 49-50 흠정역] 그가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가라지를 모으다가 그것들과 함께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수확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어라. 수확하는 때에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를 함께 모아 불태우게 단으로 묶되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하시니라. 40 그런즉 가라지를 모아 불에 태우는 것 같이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41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것이요, 그들이 실족하게 하는 모든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모으다가 42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깊이 있으리라. 43 그때에 의로운 자들은 자기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49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사악한 자들을 갈라내어 50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깊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서는 사악한 자들의 행선지가 지옥임을 분명히 선언하심으로써, 의인들이 격려 받기를 원하셨다고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주위에 악한 사람들과 조직들이 온갖 사악한 일을 부끄러움 없이, 대담하게 수행함으로써 이 세상을 시끄럽고, 어둡고, 추악한 곳으로 만드는데 전심 전력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종말의 때가 매우 가까웠으니 그러한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지만, 빨리 주님께서서 재림하셔서 이 사악한 세력을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시고 온 세상을 새롭게 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 하지 말아라. 머지않아 내가 재림하는 때에 나의 천사들을 보내어 이 사악한 무리들을 모두 한데 모아서 영원히 불타는 용광로에 넣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참된 성도는 이러한 주님의 위로에 힘을 얻고, 이 때를 잘 인내하면서, 자신의 처지에서 참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빛을 밝게 비추는 일에 전심 전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6-9 흠정역]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의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 깊은 곳에 빠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리라. 7 실족하게 하는 일들로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으리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로되 실족하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도다! 그러므로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들을 찍어 네게서 내버리라. 네가 절뚝거리거나 불구가 된 채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존하는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네게 더 나으리라. 만일 네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네게서 내버리라. 네가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네게 더 나으리라.

이 말씀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그들의 손이나, 발이나, 눈이 잘못되어 성도들에게 울무가 되고 마음이 상하여 믿음을 잃게 만든다면 그런 목회자, 장로, 집사, 권사들은 지옥 불에 들어갈 위험이 크다고 하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잘못, 안과 밖이 다른 위선적 생활이 다른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차라리 손이나 발이나 눈을 자르거나 후벼 파서라도 그런 위선적 요소들을

제거하여 정화된 생활, 성도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의로운 생활을 해야 한다는 우리 주님의 매우 엄중한 가르침입니다. 오늘날 부패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새겨 듣고 몸으로 실천해야 할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24:48-51 흠정역] 그러나 그 악한 종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주인이 오는 것을 늦추시는구나, 하며 자기 동료 종들을 때리고 술 취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 시작하면 그가 그를 기다리지 않는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잘라 내고 위선자들과 함께할 그의 몫을 그에게 지정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앓아 있으리라.

이 말씀 역시 주 예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내리신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1 세기에서 4 세기 초까지 교회는 잦은 핍박을 받으면서, 여러 사람들이 순교를 하는 가운데 참된 신앙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4 세기에 들어 로마 제국의 국교로 지정이 되면서 제국의 부와 권력에 휩싸이게 된 교회의 지도층은 점차 심히 부패하게 되고, 교황 제도의 정통성을 인정하기를 거부하여 깊은 산속이나 사막으로 도피한 참된 신앙인들을 이단으로 몰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재산을 몰수하는 악행을 부지기수로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신분을 잊고, 사탄의 고임에 빠져 이 예수님의 이야기처럼 ‘악한 종’의 무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어떤 천주교 학자가 추정하기를 천주교회가 암흑시대를 통하여 죽인 사람의 수가 6 천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들의 영원한 자리는 사탄과 그 무리를 위해 주님께서 마련한 지옥이 분명합니다.

교회의 책임을 맡는 일은 하나님 앞에 매우 엄중한 책임입니다. 주님의 양을 돌보는 일은 스스로를 예수와 같은 양치기 목자로 만들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엄중한 소명을 떨리는 두려움으로 받고 매일 그 소명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주님의 참된 종이 되어 지옥을 피하고 하늘 왕국의 영광과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기를 축원합니다.